

‘과학’으로 명문 된 헉슬리 家

글 | 조숙경 한국과학문화재단 전문위원



헉슬리 3대 할아버지 토머스 헨리 헉슬리, 아버지 레오나르도 헉슬리, 손자 줄리안 헉슬리(왼쪽부터)

가수 양희은이 컴백할 때 부르던 노래가 있다. “내 나이 마흔일 적에” 라는. 한 번쯤 뒤돌아보고 쉬었다가 다시 가야할 나이라는 뜻이리라. 지난 주말에는 문득 뒤돌아보고 싶은 기억이 있어 대학 시절에 헤매던 신림동 289번 버스 종점 근처를 찾았다. 그러나 웬걸? 목련이 피어나던 아담한 하숙집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5층의 다양한 건물들이 즐비한데, 간판은 하나같이 고시원으로 붙어 있다.

그런데 150년전의 영국도 우리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역사상 사회적 유동성이 가장 왕성하던 시기라는 공통점 이외에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때 영국에서는 지금의 우리보다 과학기술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했고,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사회적 신분 상승의 중대한 사회적 변수였다는 것이다. 산업혁명의 성공과 함께 과학은 신학, 법학, 의학에 버금가는 전문분야가 되었고, 헉슬리 가문은 바로 그러한 시대에 과학에 대한 열정을 키우며 과학의 명문 가문으로 급부상했다.

‘진화론의 대변자’ 할아버지 토머스H.헉슬리
‘다윈의 불독’으로 불린 할아버지 토마스 헨리 헉

슬리(1825~1895)는 헉슬리가를 과학의 명가문으로 일으켜 세운 주인공이다. 시골 학교 교사이던 아버지의 일곱 자녀중 한 사람으로 그는 고작 2년간의 정규학교 교육을 받았을 뿐 대부분의 학문을 독학으로 깨우쳤다. 16세 때 그는 자형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차링크로스 병원에서 의학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고, 졸업 후 곧바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해군에 입대하여 래틀스네이크호에 승선하였다.

나무상자 같이 비좁은 선실에서 1백 50명과 함께 지낸 4년간의 항해는 그에게 해파리에 관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고, 1850년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왕립광산학교의 지질학 강사가 됐다. 그는 이때부터 과학 교육에 힘을 썼고 대중을 위해 과학잡지에 글을 썼으며, 과학자들과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그의 나이 25세였다.

헉슬리를 무엇보다도 유명하게 만든 것은 1860년 영국과학진흥협회(BAAS) 옥스퍼드 모임이었다. 그는 영국 국교회 주교인 사무엘 월버포스와 일대 격론을 벌였다. 주교가 다윈의 진화론을 비난하면서 그에게 “당신의 어머니 쪽이 원숭이요? 아니면 아버지 쪽이 원숭이요?” 라고 비꼬며 묻자, 헉슬리는 “중요한 과학 모임에서 그렇게 우매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고 싶은가, 아니면 비참한 원숭이고 싶은가 묻는다면 나는 차라리 원숭이를 택하겠소” 라고 되받았다는 일화가 있다.

헉슬리는 평생 몸이 약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세상에 내놓고도 자신의 이론이 생존투쟁에서 살아남는데 전혀 손을 쓰지 못했던 찰스 다윈을

대신해, 진화론의 적극적인 수호자가 되었다. '다윈의 불독'이라는 별명은 그가 1859년 출판 직전의 '종의 기원'을 읽고 나서 다윈에게 "저는 발톱과 부리를 날카롭게 하고 공격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데서 기인한다. 런던 자연사 박물관의 양쪽 기둥에 다윈과 헉슬리의 동상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은 현대 진화론의 성립에 있어 헉슬리의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3대과학자, 전통 가문 앞질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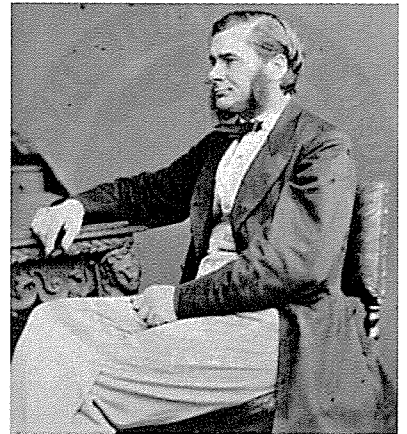
헉슬리는 비단 생물학 연구를 수행하거나 생물학을 옹호하는 측면에서만 과학활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철학과 역사에도 폭넓은 식견을 갖추어 과학을 통한 사회 정의의 실현에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는 초등학교 의무교육과 과학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치적 감각을 발휘해 국가적 차원의 왕립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 국민의 과학적 소양 증진에도 힘썼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위대한 점은 생물학에 대한 열정과 과학을 통한 사회적 참여의 기풍을 만들어냄으로써 세 명의 손자들을 빼어난 과학자, 그리고 과학을 사랑한 지식인으로 키워냈다는 데 있다.

할아버지 헉슬리가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그의 큰 손자 줄리안 헉슬리(1887~1975)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물학을 공부했다. 줄리안의 동생인 올더스 헉슬리 역시 옥스퍼드 대학을, 앤드류 헉슬리가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은 이제 헉슬리 가문이 영국의 전통적인 가문과 어깨를 견줄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줄리안은 한동안 미국과 이탈리아를 돌며 강의도 하고, 1940~50년대에는 생물학의 메카로 떠오른 런던대 킹스 칼리지에서 진화론의 새로운 개념도 고안해냈다. 하지만 그는 곧 교수직을 그만두고 보다 대중적인 차원에서 과학의 확산을 꿈꾸었으며 과학 영화 제작자와 손을 잡고 자연사에 관한 여러 편의 영화를 제작하였다. 그는 이른바 영화를 통한 과학 대중

화에 일찍부터 나선 셈인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대중을 위한 과학 순회 강연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생물학 분야와 대중의 연결을 도모하였다.

올더스 헉슬리(1894~1963)는 처음에 영문학을 공부했지만 결국 할아버지 때부터의 기풍을 이어 과학 대중가로서의 길을 걸었다. 『원숭이와 본질』 같이 생물학을 소재로 한 과학소설을 집필하던 그는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Brave New World』의 작가로 유명하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이 모두 인공적으로 제조되는 미래 사회를 풍자적으로 꼬집었는데, 그가 이미 70년전에 경고했던 미래가 바로 우리가 살고있는 오늘이고 보면,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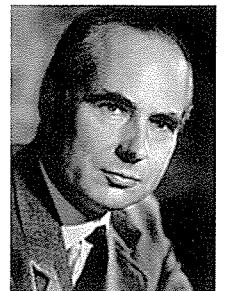


토마스헉슬리

막내 손자 앤드류 노벨과학상 수상

제일 막내인 앤드류 헉슬리(Andrew Fielding Huxley, 1917~)는 중간에 과학연구를 단념했던 줄리안과는 달리 평생을 연구하는 과학자로 남았다. 케임브리지대를 졸업하고 실험 생물학과 생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를 계속하던 그는 신경의 전달 매커니즘으로 나트륨 펌프를 제안하여 1963년 결국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1980년 그는 꼭 1백여년 전에 그의 할아버지가 그러했듯이 전통 깊은 영국 왕립학회(Royal Society)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17세기에 조직되어 뉴턴과 같은 우수 과학자들의 활동무대가 되었던 왕립학회는 오늘날에도 영국 과학자들의 가장 권위 있는 모임으로 남아있다. 앤드류는 과학소설가나 과학영화제작자였던 형들과 달리 과학연구에 투신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고 후배 과학자들을 격려하는 방법을 통해 과학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앤드류 헉슬리